글. 충청투데이 편집부국장 · 논설위원 나재필

나이팅게일을 응원하며

Mr. Nightingale

낙엽이 쓸쓸히 떨어지던 어느 가을날, 여섯 번째 사표를 던졌었다. 신문사는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해임은 무자비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은 타의에 의해서 커리어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백만 장의 텍스트를 읽고 또 읽었던 기자였는데 달랑 A4지 한 장으로 수속을 마쳤다. 더 놀라운 건 스스로 사표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당장의 카드 값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다. 내 신세가 마치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낙엽 같았다. 나에게는 냉정한 논리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화를 낼 사치와 여유가 없었다. 날마다 복닥거리며 사는 것이 싫었다. 한 장의 사표(辭表)가 아니라 인생의 사표(死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직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임신한 아내와 곤히 잠든 아이를 보고 속이 까맣게 문드러졌다.

이 또한 어쩌겠는가. 썼다가 찢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보란 듯이 사표를 썼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번듯한 직장에 있을 땐 뭘 하든 밀어줄 듯 굴지만 막상 나오면 언제 봤느냐는 듯 외면하는 게 세상인심 아니던가. 그리고 한 달 만에 난 다시 일어섰다. 그 힘의 원천은 가족이었고, 그 눈물의 근원 또한 가족이었다.

사표를 던졌을 때 어렸던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다. 그것도 쉽지 않은 미스터 나이팅게일의 길을 택해서 말이다. 문제는 아들이 요즘 재수(再修)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들은 다시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공과대학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간호학과를 불과 1년 다니고 내린 그 결심이 야속하기까지 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이니 조금만 더 참아볼 수 없느냐고 볼멘소리도 해봤다. 하지만 이건 '아들의 사표'였다. 어쩌면 아들의 '눈물'이기도 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냥 아들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 아니, 아들의 '변심'만 기다리고 있다. 한차례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고 하명만 기다리고 있다. 매서운 겨울이 힘들어도 봄은 다시 올 테니까….

학창시절, 난 사고뭉치였다. 그래도 사춘기 끝자락에서 만난 어머니는 모든 걸 용서했다. 우린, 믿어왔던 것들이 의심스러워질 때 말을 잃는다. 사랑했던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 입을 닫는다. 머물었던 것들이 떠나려할 때 눈을 감아버린다.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은 어쩌면 부모가 원했던 그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아들이 겪는 홍역은 내가 겪었던 아픔이다.

미스터 나이팅게일의 힘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다. 한국에선 더하다. 한 달이면 열흘 밤샘 근무에 한 사람당 환자 수도 미국의 3배다. 지방과 소규모 병원은 물론 대형 병원에서도 연평균 15%가 떠난다고 할 정도다.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미국 드라마 '머시'에 나오는 베로니카는 뛰어난 간호사다. 응급 구호에 관한 한 웬만한 레지던트 저리가라다. 어느 날 길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로 다친 환자를 본 즉시 가슴에 찬 공기(기흉)를 빼내는 응급 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 다음 조치를 일러준다. 그러나 의사는 그런 지시를 누가 했느냐고 따지고 "내가 했다"는 그에게 "넌 간호사야. 지시는 내가 해"라고 내뱉는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환자 약혼녀 또한 "의사도 아닌 간호사 주제에"라며 환자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친다. 뿐이랴. 성격 고약한 할머니 환자는 입원실에 들어선 신참 간호사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며 "하는 일이 뭐냐"고 소리친다.

한국엔 1만 여종의 직업이 있다. 간호사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아들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훌륭한 '미스터 나이팅게일'이 되길 소망한다. 크림전쟁에서 피투성이 막사를 헤집고 다니며 병사를 살려내던 나이팅게일의 후배였으면 좋겠다. 평생직장은 없다. 편한 직업은 더더욱 없다. 억만장자 400명의 첫 직업(퍼스트 잡, first job · 첫 사회경험)은 대부분 신문배달부였다. 잭 웰치, 월트 디즈니, 샘 월튼 역시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다. 이들은 빈병 팔이, 접시닦이, 공사판 막노동, 세차장 아르바이트, 음식점 서빙 등 단순한 밑바닥 일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살면서, 땅 한 평 넓히지 못했다. 정원 한 번 가져보지 못했다. 남들이 땅 한 뼘, 한 뼘을 넓힐 때마다 곁에서 박수만 쳐줬다. 그래도 버텨온 것은 '애인 같은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나이팅게일이여, 힘내라."